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식품산업 도약 발판

도, 식품클러스터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내년까지 150억원 투자
단순 먹거리 식품 넘어 기능성식품 개발로 산단 활성화 계기 될 듯

전북도는 전국유일의 식품전문산업 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내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을 2020~23년 4년에 걸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은 '2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후 2021~2022년 3월까지 건축기공, 설계 공도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4~7월 조달청 공고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신(新) 6대 기업지원시설중에 포함돼 있는 기능성원료은행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에게 국산 농자원 중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소재를 발굴해 분양 및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은 2020~23년 4년 동안 15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1,800㎡로 건축할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성원료은행이 구축되면, 식품의 기능소재 발굴, 표준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 벤처기업, 전국 식품기

업 등에게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제공, 단순한 먹거리 식품을 넘어 기능성식품의 개발로 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단지가 한층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영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기업 지원시설인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을 통해 식품의 기능성 소재 개발, 성분의 표준화, 상품화 실증지원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D-7... 선거 홍보물 살펴보는 유림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전주한교에서 유림들이 선거 홍보물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 정부 산업정책, 혁신성장 기회로

전북연구원, 세미나 열고
산업공약 이행 방안 논의

"지역 내 산업정책 기회
집행 등 역량 확충돼야"

"尹 정부 공약 구체화
신사업 발굴 전략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 산업정책과 전북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 산업정책과 전북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파악하고, 전북지역의 산업공약을 신속하고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 지역산업정책과 전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향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와 재원 사용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등이 확대될 전망이면서 지역 내 산업정책을 위한 기획, 집행, 평가의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이 '새 정부 전북 공약과 후속 대응 방향'을 주제로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의 산업발전 공약 등을 공유했다.

토론자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병수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웅규 박사, 오명준 전(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양오봉 전북대 교수, 최상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전북은 탄소소재와 그린수소, 미래차와 데이터, 첨단의료 등이 지역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전북 발전이 어느 때보다 더 기대된다며,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연관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특구 지정 사업에 민간이 투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남 원장은 "구술이 서 밑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 산업발전 전략을 위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도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과 전북공약 이행 및 연계사업 발굴은 물론 전북도의 새 정부 정책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오는 30일에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체육 꿈나무 720명, 전국체전 출전

28일부터 4일간 경북 일원서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려

전북 체육의 꿈나무인 720명의 선수들이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2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8~31일까지 나흘 간 경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소년체전에 도내에서는 720명(초등부 288명·중등부 432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
이번 소년체전은 코로나19로 여파

로 3년 만에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8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사전 경기에서 승전보를 전해오면서 출발은 좋다 기세를 몰아 선전을 해낼 경우 더 많은 메달 획득도 예상된다.
전북 선수단은 축구와 야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사격, 펜싱, 배드민턴, 근대 3종, 바둑 등에서 메달 획득을 전망하고 있다.
또 기폭종목인 수영과 볼링, 에어로빅을 비롯해 체급종목인 레슬링과 유도, 태권도 등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정강성 회장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없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면 좋겠다"며 "전북 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재·부품·장비 국산기술 경쟁력 강화

도 '첨단소부장연구센터' 오늘 착공

새만금 일원에 실증시험동도 건립 올 12월 완공 예정

전북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소부장연구센터'를 2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과 나포면 일원에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첨단소부장연구센터'와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실증시험동'을 건립하며,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산단 내 첨단소부장연구센터

는 지상 1층 1,737㎡ 규모로 연구동과 시험동으로 구성되며, 신뢰성 평가장비 6종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과 도내 기업들의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나포 종합시험센터 내 실증시험동은 지상 1층 574㎡ 규모로 실증장비 3종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을 전담할 계획이다.
첨단소부장연구센터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하는 정부 지정 도내 유

일 신뢰성 평가센터로서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교류를 통해 건설기계 핵심부품 기술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를 기 준공,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검증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첨단화와 자동화를 견인하고, 건설기계분야 종합시험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국내 수요기업들의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첨단소부장연구센터와 스마트 건설기계 연구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증을 통한 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